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 추경·특검 오늘 처리 시도

특검인력 86명·기간 60일

추경 3900억 삭감 합의

오늘 10시 본회의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 등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별법의 21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애초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나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예정이 정상이 되면서 이날 새벽까지 소(小)소위를 진행하고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안에서 39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예정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예결위는 이날 중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마무리한 뒤 소위원회를 열어 추

경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이어 계수 조정 등의 실무 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9시에 예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 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점에서 여야는 목표대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현재 추경 심사 속도를 고려할 때 매일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추경안에 대한 예정위 의결이 됐을 때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이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

견공무원 35명으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각각 규모도 작고 기간도 짧았던 '내국동 특검'과 반대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한 가운데 인력 규모는 여당 주장이, 수사 기간은 야당 주장이 좀 더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지난 14일 특검법안 명칭과 추천 방식, 수사 대상 등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원명부 유출' 이용섭 후보 전 비서 입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의 전 비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이용섭 후보의 신년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이 후보의 전 비서이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비서관(5급 사무관)이었던 이 모씨를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원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광주시장 전 입 조직국장 류씨를 불구속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 류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당원명단 유출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비서 이씨와 전입 조직국장 류씨를 상대로 당원명부 유출 경위, 이 후보 선거운동 사용 여부, 지시 여부 등을 집

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소환 조사, 사법 처리 여부 등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메시지는 전 비서인 이씨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며, 이 후보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장 후보는 20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요즘 공당의 당원 연락처를 개인비서가 몰래 빼내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개인정보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박진표·오광목기자 lucky@

6·13 선거 현장

국회의원·시장·군수 후보

김명진 "한미정상, 북미관계 전기 마련해야"



김명진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협상의 묘(妙)를 발휘해야 우리가 진정한 한반도 안보 운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압박을 사용한 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공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라며 "지금 북미간 대화상황은 양쪽에서 카드를 내세우는 협상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라는 대전제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야 우리가 진정한 한반도 안보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세도 "여수시민청원제 도입 시민참여 행정"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20일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갈등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주변에서 '갈등의 해결사'라고 부른다"며 소통의 전도사임을 자임했다.

권 후보는 "세대·지역·계층 간의 갈등은 늘 존재한다"며 "여수시민청원제를 도입해 시민참여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수시 공무원은 전국 최고"라며 "여수엑스포는 물론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감동적으로 잘 마무리한 데 이어 관광정책도 타 지자체의 롤모델로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권 후보는 국제 마이스(MICE)도시 지정 추진, 남면의 방풍이나 거문도 해풍속 등의 6차 산업화, 워터프런트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천경배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 승리"



천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19일 신안군 압해읍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 신안지역 도의원·군의원 후보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천 후보는 "군민의 군수, 미래로 가는 군수, 깨끗해서 자랑스런 군수, 공정해서 믿음직한 군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셨고, 역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민족의 비전을 열었다. 신안은 인물을 만들 줄 아는 곳"이라며 "천경배를 신안의 인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성모 "함평 해양자원 가치창출 최선"



김성모 함평군수 후보는 20일 "함평의 해양자원이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을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면서 "돈이 되는 가치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함평 석성~손불 학산으로 이어지는 함평만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바라보며 따라 걷는 해안누리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근 관광지를 들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하여 해안누리길 인근 지역민의 소득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김 후보는 "여기에 안락항의 연안을 정비하고 주포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건립 등 어촌의 정주여건개선과 소득창출여건을 조성하여 함평만을 거점으로 하는 어촌 종합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길호 "특산품 개발 통해 소득 증대"



고길호 무소속 신안군수 예비후보는 20일 부채없는 군 살림을 기반으로 민선 7기 정이 넘치는 화합을 통한 연속성 있는 균형 실현을 강조했다.

현 군수인 고 예비후보는 민선 6기 정직·정열을 바탕으로 후손이 살기 좋은 신안군을 만들기 위한 알뜰한 행정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어르신들의 삶의 현상이 고난이 아닌 후손에 의한 보람된 노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특성에 따른 특산품 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로 소득 증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선 7기는 신안군의 미래에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연속 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허주연 장애인 정책공약 제안... "임흥빈 지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허주연 공동대표 등이 최근 신안군 압해읍 임흥빈(사진) 무소속 신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장애인 복지 정책공약 제안을 전달하고 임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20일 임흥빈 예비후보에 따르면 허 공동대표는 "장애가 있는 임 예비후보는 지난 12년 동안 전남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누구보다 장애인 정책을 적극 펼쳤다"면서 장애인 복지 정책공약 제안을 임 예비후보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재가 및 시설 거주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택시 이용료, 선착장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바른미래 광주시장 후보 전덕영 전 전남대 교수회 회장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전덕영(59) 전 전남대 교수회 회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전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민주당평화당 김중배, 바른미래당 전덕영,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20일 "전남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전 전 회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식품공학과를 나와 카이스트(KAIST) 생물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전 후보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캠프의 '싱크탱크 미래' 회원과 국민의당 '4차산업혁명



전략추진단' 고문, 미세먼지대체특목위원회 특보단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광주전남 대표로 활동해 왔다.

바른미래당은 또 중앙당 선대위와 17개 시도당 선대위를 꾸리는 등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구성 권한을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지사 후보로 의결된 박재호 후보와 이날 공천 결정된 전 후보를 각각 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박정욱·오광목·함평 황운학·신안 이상선 기자 jw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